

인간성 회복을 향한 깨달음 法頂 수상집 「텃빈 충만」

— 조계사 宗眞스님

지금 독자들

“우리나라 불교신자는 대부분 祈福신앙을 중심으로 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단순히 불교성전을 읽는다는 게 예불만 드린다고 해서 불교사상의 맥을 제대로 짚을 순 없어요. 이를테면, 불교의 중도사상은 짜르바카(극단적 쾌락주의)와 차이비즘(극단적 고행주의)이 서로 지양되면서 탄생한 사상입니다. 부처가 화려한 궁중생활과 고달픈 고행을 체험한 후 깨달음을 얻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진정한 신앙은 부처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달렸다는 얘깁니다.”

조계사의 宗眞스님은(28)은 바로 그러한 의식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읽음으로써 이 책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법정스님의 「텃빈 충만」(샘터)을 꺼내든다. 法頂은 이미 「무소유」 「서있는 사람들」 등으로 독자와 친숙한데, 이 책은 그의 새로운 산문들을 모은 것. 논단형식의 짧은 글들이 전체 4부로 나뉘어 묶였다.

“제목 그대로 텃빈 충만을 한아름 남겨 주는 책입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계화, 물질문명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인간들에게 법정의 이야기는 인간성 회복의 참 일깨움을 던져주죠. 예컨대, 자연의 숨겨진 위력과 인생의 허무함을 대비시키면서 부처의 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도들에게 여러권 선물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꼭 권유하고 싶다고. 동국대에 재학하면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종진스님의 학문적 관심은 인도철학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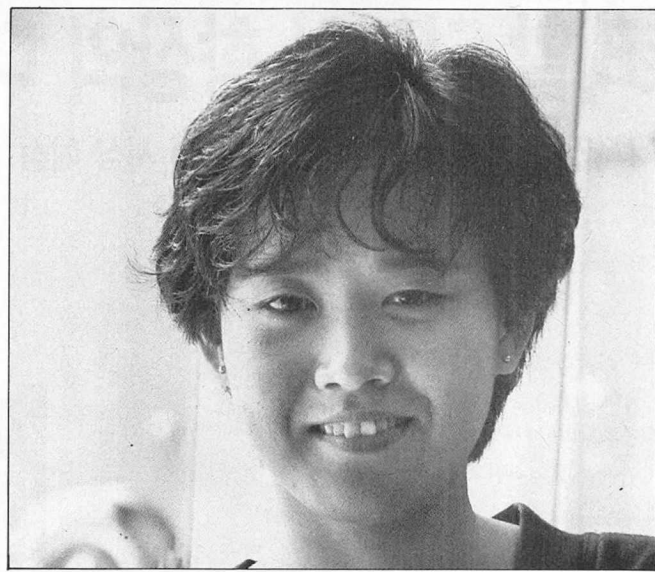
했지만, 우리 사회현실과 관련된 문제에도 관심은 깊었다. 불교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욱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에 대해서는 체험을 통하지 않은 채 이론으로만 체계화시킨 것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란다. 김용욱씨가 지적한 현재 한국불교의 대립과 반목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종진스님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한국불교의 문제는 자유당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봐야죠. 유신 때 호국불교로 전락했고,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는 사찰을 군화밭로 짓밟히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정권의 예측성은 여전하다고 봐요. ‘부처님오신 날’에 올림픽성공지원을 위한 행사를 치러 ‘올림픽 초파일’이 되고 말았던 작년의 경우를 생각하면, 짧은 승려로서 치욕을 느낍니다. 물론 성직자들의 자질이라든가 내부적인 구조의 모순 등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승단이 화합, 정론의 길로 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새벽 4시의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종진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이는 해인사의 性徹스님이란다. 앞으로 티벳이나 실론 등 소승불교권에서 직접 몸으로 참선수행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인도의 성지순례와 일본에서 교리공부도 더 깊게 해보고 싶다고 했다.

“승려도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삽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승려 또한 ‘중생’ 아니겠습니까.” 승려생활 10여년이 넘는 종진스님의 겸손한 고백이다.

— 김지원기자



오늘의 시대를 꿰뚫는 현실감각 구광본 시집 「강」

— 서울시네마타운 沈載明씨

지금 독자들

보통 사람들이 한달에 한두번도 관람하기 힘든 영화를 직업상 하루걸러 한번씩 본다면 무척 신날

거리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네마타운의 沈載明씨(27·기획실장)는 선망받는 직업인 중의 하나랄 수 있다.

심재명씨가 얼마전 4명의 직원을 거느린(?) 실장이 된 것이 본인은 조금은 겸연해하지만 캐리어우먼으로서의 분위기와 걸맞다는 느낌이다. 기획실장으로서 하는 일은 영화광고·홍보·국내제작기획·수입제작기획 등.

“수입자화화 이후 많은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데 비해 소화할 극장은 태부족입니다. 외화수입에만 주력하고 방화에 대한 재투자가 안돼 아쉽습니다.”

요즘 심재명씨가 읽고 있는 책은 구광본의 시집 「강」(민음사·87)이다. 순발력을 요하는 직업이다보니 진득하게 앉아서 소설을 읽기보단 시를 즐겨 읽게 된다고.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이름이지만, 그의 시를 읽고 나면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일상적인 언어로 친숙한 사람에게 얘기하듯 써내려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날카롭고 현실을 꿰뚫는 눈과,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주제의식이 있어 마음에 듭니다.”

「밥줄」「귀가」「식구」 등 일련의 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루의 밥줄 때문에 일하는 고단함, 흔들리며 갈등하는 모습이지만, 시인은 그러나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극복의지도 잊지 않는다.

출판사에 근무하기도 했었다는 심재명씨가 옛 서울극장일 때 입사해 처음 맡은 일은 카피라이터. 대학 재학중 제일기획 주최 ‘대학생광고대상’에서 카피 부문에 입선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한다.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UIP문제로 얘기가 옮겨가자 “UIP 직배는 헐리웃의 상업주의에 의한 우리 문화의 잠식이죠. 상업성이 강한 영화만으로 밀고들어와 좋은 영화가 골고루 상영돼야 할 영화가에 오락성이라는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겁니다. 자본은 몽땅 미국으로 흘러가버리고 국내 영화제작에 투자가 안돼 결국 미국의 문화식민지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UIP와 상영계약을 맺은 극장은 싹튼 좋은 UIP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UIP직배 영화를 우선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 방화제작은 줄어들고 우리 영화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도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돼, 몇몇 영화인들만이 극단의 방법으로 저지투쟁을 벌이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심재명씨가 요즘 읽고 있는 또다른 책은 이문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인데, 이것은 순전히 ‘직업상’이라고 밝힌다. 이 소설의 영화화가 결정돼 얼마전 크랭크인했다는 것. 지금까지의 이문열 소설 ‘답지않게’ 통속적이며 소설적 플롯이 미약하다고 평한 후, 그러나 상당히 ‘영화적’이라고 강조하는 데에서 프로페셔널한 ‘끼’가 엿보인다.

— 권정자 기자



아들사랑이 혁명적으로 승화된 삶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회사원 車孝善씨

지금 독자들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편안함을 주는 이로 존재한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수 없는 감사함도 함께 느끼게 된다.

“부모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없더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지극히 순수한 것이지요. 자식이 설명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식을 욕하고 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고리끼의 「어머니」(최윤락 옮김 열린책들)도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밑바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차효선씨(25)가 「고리끼」를 읽고 맨처음 느낀 소감이다.

“이책이 1907년 발간되었으니까 1917년 러시아혁명을 앞둔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한 노동자가 자신의 존재를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볼셰비키당원으로 짜르체제에 대항해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초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쾌락만을 추구하던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과 학습을 하면서 세계에 대해 새롭게 눈뜨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아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는 근심하지만,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자신도 각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혁명가로 변신하게 되는 이유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있었다고 차효선씨는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운동을 하던 아들이 구속되면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단지 아들의 구속 하나만으로 평범한 어머니들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능케 한 겁니다.”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친밀감을 더 갖게됨은 자식교육에 어머니의 영향이 큰 탓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겪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때리며 학대하는 술고래였어요. 중학교 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으면서 울분을 느낀 적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뉘를 갖고 사는 듯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로 향하는 애정이 더욱 깊을 테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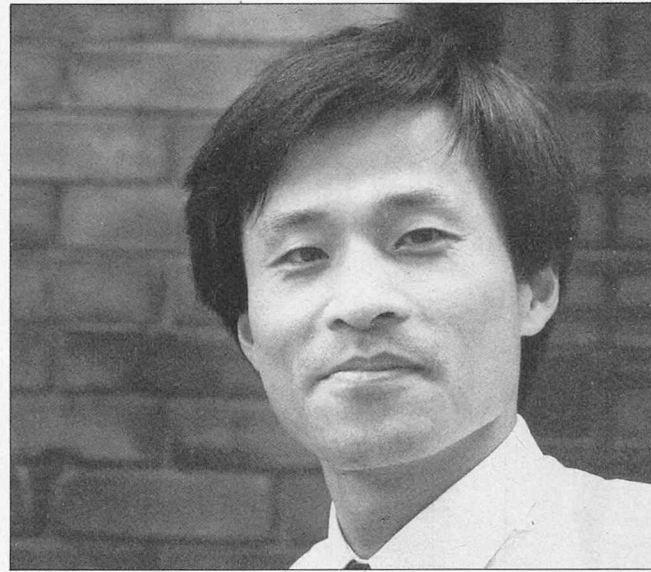
차효선씨의 지적처럼 고리끼의 「어머니」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역경 속에서 자식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에 비하면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라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탓에 어머니로서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성의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갖지요.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희생적인 어머니들의 삶이 고향에 대한 향수처럼 그림자요.”

회사에서 동남아지역 기계·철강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일과 가정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현대여성의 과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홍현숙 기자



민주화 갈등 속 개혁의 진로 모색 한상진의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원 權浩辰씨

지금 독자들 대낮에도 환히 쬐든 고층빌딩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갖춰 맨 채 직급에 따라 배열된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대기업 샐러리맨을 연상할 때 의례껏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이다. 일종의 편견이 개입된 연상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뭐랄까, 대기업 특유의 조직사회적 냉정성과 딱딱함에 얼른 결부된다.

럭키금성 계열의 회성산업에 근무하는 權浩辰씨(31·총무부)는 그러나 조금 다르다. 좋게 말해서 넉넉하고 나쁘게는 약간 ‘험렁하다’.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사보편점이라는 특수업무인 탓도 크겠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원래 그렇단다.

“꼭 짜인 것보다는 어느 한 군데 빈 구석이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인간이라고 할 것까진 없겠지만, 어떤 푸근한 숨결들이 드나드는 통풍구만은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선지 저는 책도 異論의 여지가 있는, 흔히 하는 말로 ‘열려 있는’ 걸 좋아하죠.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강요한다 싶으면 조금만 읽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런 그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사회학자 韓相震교수(서울대)의 칼럼집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동아일보사). 제목이 암시하듯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명쾌하게 분석한 시론들을 담고 있는데, 이 방면의 책들이 흔히 드러내는 ‘옹고집’ 대신 개방성과 탄력성, 그리고 학자다운 평형감각을 발견하게 된다고.

“박종철군의 죽음 이후 전개된 80년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저자는 좌절하여 냉소주의에 빠지지도 않거니와, 반대로 관념적 급진주의를 향해 치달리지도 않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갈등과 그 해갈의 가능성을 사회구조의 흐름 안에서 혁명이 아닌 개혁의 방법론으로 모색하고 있죠.”

특히, 권호진씨는 이 책에서 한상진교수의 이른바 ‘中民이론’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변혁의 주체를 무산계급에 한정시키는 운동권 논리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의심을 이 中民이론이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즉,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양극분화로서가 아닌, 무산계급에 동지적 연대감을 갖는 中民의 팽창에 착목하여 변혁의 주체를 설정한 점이 큰 설득력으로 다가온다는 것.

대학원까지 마친 사회과학도답게 권호진씨는 평소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특성, 미래에의 전망을 다룬 책들을 즐겨 읽는다. 주위에 “글쭙해나 쓴다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 간간히 문학책도 들춰보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책에 손이 더 간다. 수첩벽 또한 대단해서 특히 신문의 경우 근 10년동안 한달치씩을 제본하여 집에 쌓아두고 있는가 하면, 개인 암실을 차려놓을 정도로 사진촬영도 프로급이다. 그래선지, 여기저기 친구들의 결혼식에 사진사로 자주 불려다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아직 미혼.

장난삼아 사주를 보았더니 “여름 토끼띠가 배우자로 적당하리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말하는 30줄의 총각이다.

—강철주 기자